**삼상2815 Note**

**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삼상28:15]주제1: [사울과 접신녀(接神女)]주제2: [사무엘의 패전 예고]

▶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–

성경 기자는 여기서 마치 실제의 사무엘이 등장하여 말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.

그러나 실상에 있어서 성경 기자는,

사무엘을 흉내내어 나타났고 그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고 있는 악령을 편의상 간결하게 '사무엘'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. 이때 악령은 초혼술(招魂術)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, 영매(靈媒)인 접신녀(接神女)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다.

▶ 나로 분요케 하느냐 - '분요케 하느냐'(\*, 히르가즈타니)는 '격분하다', '진동하다'란 의미를 갖는 '라가즈'(\*)의 사역형으로서 '안식을 방해하다'(disquit, KJV; disturb, NIV)란 뜻이다(렘 50:34).

특히 이 단어는 시돈의 왕 타브닛의 비문에서 무덤에 대한 모독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(Klein).

따라서 이 단어는 무덤을 평온하게 안식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고대 중근동의 내세관과 잘 부합된다(Klein; 욥 3:13-19; 사 14:9).

아울러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막론하고 지하 세계인 음부(스올)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히브리인들의 고대 사상을 반영한다.

그러나 계시(啓示)가 점진적으로 완료된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엄밀히 말하면,

죽은 자 중 성도는 낙원으로 가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,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,

어떤 자도 음부에서 단순한 휴식을 취하지는 않는다(눅 16:19-31).